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4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1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식 축사

이재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 서울법대 이야기

송석운 교수 · 추모의 글: 송석운 교수를 기억하며
최봉경 교수 · 법치주의 위기와 법학교육의 과제
전상현 교수 · 헌정질서의 회복과 우리에게 남은 과제
천경훈 교수 · 상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신영옥 교수 · 첫 법조윤리 수업을 마치며
소라미 교수 · 공익법률센터, 학생들의 공익 경험을 잇다
김화진 교수 · 김화진 교수의 발자취
이무룡 교수 · 법정에서 강단으로: 이무룡 교수의 새로운 여정
16기 노시현, 이현우 · 지치지 않기 위해, 학우들이 전하는 작은 스트레스 해소법
17기 강내훈 · 고립을 넘어, 함께 서기 위해
17기 이신형, 이은세, 최혁중 · 다양한 학부 전공생들의 법학 적응기

14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15 연구소 · 센터 소식

19 릴레이 도서 추천

20 기금 안내

SNU Law 캠페인 안내
Next Decade 기금 안내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5. 3. 1. — 2025. 8. 31.
예우 안내

정의의 종 42호
발행인. 이재민 원장
편집인. 공두현 학생부원장
기획 및 취재. 김나혜 성승현 한하은 학생기자
제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전하는 법조인을 향하여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재민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졸업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강용현 서울법대 동창회장님 및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졸업을 축하하고 졸업생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여름은 기후변화를 실감하게 하듯 유난히 더웠습니다. 더위 못지않게 우리 국내외 사정도 녹록치 않았습니 다.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의 마지막 과정을 묵묵히 완주해 낸 졸업생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는 학위는 선배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인류의 지성이라는 도서관에 여러분의 지성을 보태어 이룬 결실입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후배 연구자들이 참고할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무사히, 훌륭하게 완주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하나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법대를 졸업하는 이 순간은 졸업생 여러분에게 다양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도 동일한 점은 여러분의 인생 한 막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연구자로서 또한 실무가로서, 학문적 성취와 실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 어떤 길을 가건, 여러분이 이곳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밑거름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힘차게 써 내려가길 바랍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모님과 가족들의 큰 희생과 성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위해 헌신하고, 또 기뻐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잊지 말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을 떠나보내며, 여러분의 선배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대의 흐름을 두

려워하지 않는 도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기후변화의 심화, 그리고 국제질서의 재편은 놀라운 속도로 전개되며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빠르게 느껴지는 나머지 일단 관망하며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을 또는 가는 길을 따라만 가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자신의 길을 찾으려는 고민과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며 이미 깨달았겠지만 법이란 결코 한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와 깊이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서울법대에서 배운 가치와 원칙을 기억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어려움에 도전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어 버리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사회를 비추어 줄 등불로 성장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졸업생 한분 한분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법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성실한 연구자, 책임감 있는 실무가 그리고 성공하는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도 모교를 잊지 않고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발자취는 서울법대 후배들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모교의 자량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서울법대 졸업식장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 혜택을 받은 것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역에서 활동하든 이곳 서울법대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더 크게 환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며 품은 높은 뜻을 앞으로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 재 민

추모의 글: 송석윤 교수를 기억하며



송 석 윤 교 수

지난 5월 15일, 헌법학의 큰 스승 송석윤 교수님이 영면하셨다. 제자로서 가까이에서 보였던 조동은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이 글에서는 그의 학문적 여정과 삶을 되새기고자 한다.

조동은 교수는 “헌법학자의 학문은 그의 삶 및 시대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송석윤 교수님의 학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가 살아온 시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는 강압이 지배하던 전두환 정권 시기에 대학 생활을 하였고,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새로운 헌법의 탄생을 낳은 1987년 6월 항쟁을 경험하셨다. 독일 유학 시절에는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동서독 통일이라는 격변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교수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헌법이 정치권력에 대하여 규범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대적 경험은 그의 헌법학에서 헌법의 규범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교수님이 평생 주력하신 연구 주제는 ‘정당’과 ‘선거’였다. 박사 학위 논문의 한국어 판본인 『위기시대의 헌법학』에서 교수님은, 정당이 이미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헌정현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대응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헌법학이 정당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교수님은 헌법학이 개입해야 할 지점이 정당과 선거라 보고, 이 주제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이어갔다.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에서는 독일헌법의 정당조항이 1962년 헌법에 이식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왜 오랫동안 정당조항이 실질적 규범력을 획득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에서는 선거운동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하는 선거법제가 일본의 보통선거법으로부터 유래했음을 밝히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선거법의 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방법론적 측면에서 교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적 접근이었다. 즉, 제도 자체뿐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들어낸 환경과 제도 간의 상호작용까지 살펴보아야 비로소 제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소신을 가지고 계셨다. 교수님은 또한 법적 개념이 탄생한 사회적·역사적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굳어진 법개념의 이면을 밝히고 그로부터 새로운 전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제개념의 헌법사적 연구」에서는 대표제 민주주의에서 ‘대표’라는 개념을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표 개념은 협소한 의미의 자유위임을 넘어선 다양한 관계들을 표현해 왔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교수님은 법률가 양성제도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셨다. 국가가 법률가 양성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는 법률가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는 로스쿨제도가 부작용 없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경로로 제시하셨다. 이는 국가적 관점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바람이기도 했다.

학문적 차원을 넘어서도 교수님은 귀감이 되는 스승이었다. 학문적 입장에 대하여 쉽게 양보하시는 일은 없으셨지만 늘 열린 태도로 토론하셨고 누구에게나 소탈하고 친절한 면모를 보여주셨다. 동시에 학문적 장 그 자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한 길만을 걸으신 학자였다.

로스쿨 초창기에는 학생부원장직을 맡으셨고, 당시 초기 기수 학생들과 가깝게 교류하기도 하였다. 대학원 과정에서 송석윤 교수님을 뵈 조동은 교수는 그를 ‘헌신적인 스승’이라 회상했다. “제자들에게 시간을 아끼지 않으신 스승이었습니다. 지도에 임하실 때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늘 격려하셨고, 무엇보다 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용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송석윤 교수님의 학문적 유산을 기리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저서에 담기지 못한 논문들은 후학들이 모아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5일에는 법학연구소 주최로 추모 학술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교수님의 연구와 가르침은 후학들에게는 든든한 길잡이로, 우리 사회에는 깊은 울림으로 남아 앞으로는 헌법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빛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나혜 학생기자

법치주의 위기와 법학교육의 과제



최 봉 경 교 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존재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권리 의식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 10만 명 당 변호사 숫자를 따져보면 아직 부족하고(OECD 최하위권), 높은 수입료 때문에 서민들이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법학교수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높여 80%에 이르더라도, 합격자 수는 2026~7년 정점을 찍은 뒤 2030~1년에는 안정적으로 1700~1800명 수준에서 유지된다. 80%까지 합격률을 보장하여 고정적인 합격자 수를 배출한다면, 신규 변호사 수를 예상 가능한 만큼 학생은 안정적으로 국내 및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시장도 수급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변호사업무도 송무 외의 직역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 관련 법률시장의 규모도 3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법률, 금융, 교육 등의 분야에서 AI 관련 시장은 법조인에게 무한한 일감을 제공하고 있다. 낮은 합격률로 인해 적지 않은 시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부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길 바란다.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학생들의 관심이 필수 과목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합격률이 너무 낮으면 결국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변시를 위해 선택법 단기 특강만 듣는 상황 속에서, 교수들은 폐강을 걱정하며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변시와 관련도가 낮으면 부담을 느껴 수강하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선택과목 이수제다. 선택법의 기초 및 심화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은 그 과목을 합격한 것으로(또는 이를 전제로 변시 선택과목 폐지)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 2학기 이상 전문법을 공부한 전문가를 시장에 배출할 수 있고, 전문법과목 교수들 역시 폐강 걱정 없이 강의 개설이 가능해질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위기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학부 법학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법조 시장이 체계적인 학부 법학교육과 병행되어야 예비 법조인 층이 탄탄해진다. 시험과 관계없이 법학을 공부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어려움 없이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는 배경 속에서 변호사가 양성되어야 법치주의가 안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로스쿨 설립 이후 16년간 법학 교수직은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법학과가 소멸하고 있고 법학도도 급감했다. 법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에 대한 법교육,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높아진 법교육에 대한 수요, 평생교육으로서의 법교육 등을 로스쿨이 다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학부 법학교육과 시민법교육을 강화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가 튼튼해진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어떤 활동을 추진하였고, 또 추진할 계획인가.

법학 교수들의 권익과 복리를 대변하고, 강의와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회장 취임 후 3개의 MOU를 체결했다. 첫째로, LBOX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원래 교수 개인의 사비로 이용해야 했던 LBOX를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판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법률신문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법률신문에 있던 로스쿨교수대관에는 로스쿨 교수의 신원 정보만 입력되어 있고, 일반 법과대학 교수는 배제되어 있었다. 이 또한 교수의 사회적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 로스쿨 교수 대관을 법학교수대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선택과목 이수제 관련 설문조사, 학부법학교육 부활 관련 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사태 및 탄핵과 관련하여 6차례의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변시 합격자 발표 즈음에는 7차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 자격주의에 걸맞는 합격자를 배출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변시 관리위원회에서 직접 합격률 방어를 위해 노력했다. 오는 9월 27일에는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원, 법원행정처장 등 삼부요인 및 헌법기판장 그리고 전국의 법학자를 모시고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주최한다. 전국 법학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학술 행사인 만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하은 학생기자

헌정질서의 회복과 우리에게 남은 과제



전 상 현 교수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헌정 위기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른 분기점을 남겼다. 전상현 교수를 만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교훈과 미래 법조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보았다.

Q. 헌법학자로서 바라본 최근의 헌정 위기

전상현 교수는 이번 계엄 사태를 ‘헌법학적 관점에서는 명백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헌법 조문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과정이었다. 전상현 교수는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권력이 이를 뒷받침할 경우 그 행위가 기정 사실화될 위험이 있었다”라며, 만약 헌법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했던 과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헌정질서의 위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전상현 교수는 이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와 현재의 탄핵결정이 이루어졌다. 헌법이 제대로 작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헌법적으로 명백한 사안임에도 이를 절차적으로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헌법 실현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전상현 교수는 “국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했다. 제도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헌법이 수호될 수 있었던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적극적 의사표현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러한 국민들의 높은 헌법 의식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의 역사적 축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며 성장한 국민들은 헌법의 기본 정신과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강연 중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과거의 민주화 경험들을 통해 국민들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던 성과라고 덧붙였다.

Q. 미래 법조인들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갖춰야 할 자세

전상현 교수는 미래 법조인들에게 단순한 법기술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남겼다. 전 교수는 “법률가의 기본 소양으로서 법적 기술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이기 때문이다”라면서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공동체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개인적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법적 전문성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는 것이 ‘헌법적 사고’라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로서 갖춘 역량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상현 교수는 ‘정확한 개념 사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법률가에게는 공통된 기준과 합의가 필요하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정확한 언어 사용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언어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오도하여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을 비롯한 법학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현실적으로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당장은 이런 가치적 성찰이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도, “법률가로서 사회에 나가 활동할 때에는 이러한 공익적 가치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당부를 전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성승현 학생기자

상법 개정의 쟁점과 과제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다. 이 조항이 선언적 조항이 아닌 주주 보호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회사는 주주에 대한 이익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그러므로, 회사를 위하여 일하라는 것은 주주이익을 보호하라는 요청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충실의무 명문화는 존재하는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는 확인적 입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회사와 시장에 주주 보호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제 이사들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주주들의 더 강한 문제제기와 설득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러 회사의 이사들이 경영진에게 안건 보고서 주주이익 관점에서의 분석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 법해석만으로는 거둘 수 없었던 긍정적 효과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M&A,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분쟁 포인트를 만들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금까지 상장회사 합병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산식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문제로 여겨졌지만, 그 산식을 따랐다고 해서 이사가 의무를 다했다고는 할 수 없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회사 및 전제주주 관점에서 그 여부, 시기, 거래구조에 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경우 개정 이후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단계에서 과거보다 더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배주주 견제를 취지로 하는 독립이사(현 사외이사) 선임 비율 상향에 대해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까지 한국의 사외이사는 전직 관료와 교수의 비중이 높고, 전현직 전문경영인의 비중이 낮았다. 전현직 경쟁업체 종사자를 이사회로 도입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무익무해한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은 전현직 전문경영인들을 사외이사로 적극 영입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상 문제나 각 회사의 전문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늘린다면, 독립이사 선임비율 상향이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에 대한 3%를 특수관계인 합산조항에 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개정 이전에도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3%를 초과하는



천 경 훈 교수

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3% 제한률은 비교법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만 특수관계인을 합산해 3%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지분보다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최대주주를 견제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다. 그러나 최대주주에 한해 적용되므로 최대주주 아닌 주요 주주에게 불비례적인 이익을 주고, 다양한 남용과 꼼수를 만들어 낼 것으로 우려된다. 특수관계인을 합산하려면 모든 주주에 대해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을 것이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을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공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상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의의와 한계를 평가한다면,

개정의 방향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입법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과거 입법 과정에서는 법무부에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장기간의 토의를 거치는 숙의 과정이 존재했다. 이번에는 이러한 숙의가 부족했고, 그 결과 다른 제도나 조항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3%를 특수관계인 합산조항, 전자주총 의무화 등은 실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재계 등의 상법개정 반대측에서도 이를 친기업 대 반기업, 외국 자본의 침탈과 경영권 방어 등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기업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생산적인 논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진영논리가 아닌 실질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한하은 학생기자

첫 법조윤리 수업을 마치며



신영욱 교수

신영욱 교수는 2025년도 1학기부터 처음으로 ‘법조윤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신 교수는 1995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였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법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법조윤리 강의는 학생들에게 실무와 이론을 아우르는 관점을 제공하였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신영욱 교수를 만나 한 학기 동안의 법조윤리 수업 진행 소감을 여쭙었다.

Q. 법조윤리 수업 구성 중 중점으로 둔 것

법조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법조윤리 문제를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법률가가 다루는 사건은 “남”의 일이지만, 법조윤리는 “나”의 일이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 법조윤리 규정은 하늘에서 떨어진 추상적 규범이 아니다. 수십 년간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하였고, 새로운 문제에도 대처해야 하므로, 이를 보는 눈을 열어 주고 싶었다.

직역 선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수강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여러 법조 직역에서 종사하시는 강연자들의 특강 및 로펌 방문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계엄 이후 상황은 법률가의 역할과 지향점에 관해서 깊은 고민을 요구하였다. 수업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수강생들에게 그러한 문제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Q. 법조윤리 수업을 마친 소감

나는 법조윤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법조윤리 수업을 맡았는데, 오히려 내가 법조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Q. 미래 법조인들이 견지했으면 하는 윤리적 가치관

나 또한 완벽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겸허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막강한 결정권과 큰 목소리를 가지는 것은 법률가가 도덕성이 완벽하거나, 지성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법률가는 국민과 사회로부터 위탁받은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헌법과 법률의 참 뜻을 묻고, 일반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Q.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폭넓게 경험하고 즐겁게 법전원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학우들과 친하게 지내고, 다양한 학내외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다.

사회의 다양한 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객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판단을 내려리려면 인간의 본성, 인간 관계, 사회 경제 현상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법논리나 판례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장래 진로를 열린 자세로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기르는 한편 사회와 법률 수요 변화에 맞추어 적응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갖추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더 좋다.

법학전문대학원 성승현 학생기자

공익법률센터, 학생들의 공익 경험을 잇다



소라미 교수

공감의 창립멤버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임상법학 교수직을 맡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2004년에 공감의 창립 멤버로 변호사 일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15년간 여성과 아동인권 분야에서 공익 활동 전담 변호사로 보람 있고 재밌게 활동했다. 활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기존의 리걸클리닉센터를 공익법률센터로 확장 개편하면서 센터에서 일할 변호사를 뽑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당시 로스쿨 상황이 사법고시 시절과 다를 바 없이 변신 대비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공익법률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공익법률센터에 합류하여 센터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함께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공감에서 했던 공익적 활동과 경험, 네트워크를 예비법조 후배들과 나누는 것도 뜻 깊겠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다. 2019년부터 공익법률센터에서 일하며 지난 7년간 임상법학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공익적 분야의 프로보노 활동을 기획하고 공익적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들에게 자문과 네트워킹을 제공했다.

부산대 리걸클리닉센터, 공익법단체 두루와 3자 MOU를 체결했다. 센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공익법률센터 같은 곳이 서울대 로스쿨 한 곳밖에 없어서 센터가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부분 중 하나가 센터의 활동이 전국 로스쿨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리걸클리닉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매년 리걸클리닉 교육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국내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그런 맥락에서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로스쿨과 MOU를 맺고 양 학교의 로스쿨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보노를 개설하여 임상교수와 센터의 지도변호사가 지도하면서 공익법률

센터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었다. 올해에는 부산대 로스쿨과 MOU를 체결하여 인천과 전남 지역에 이어 협력 로스쿨 지역을 경상도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부산대 로스쿨과 프로보노를 공동 기획 운영함으로써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부산 지역의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자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더욱 폭넓은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이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률센터의 활동이 있다면.

대학기 개설되는 임상법학과 특별임상법학 수업을 한번쯤은 들어보길 권한다. 책으로만 배우던 법이론과 판례가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이외에도 연중 상시 프로보노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니 편할 때에 관심 있는 프로보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공부하는 데에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들을 초빙해 강연을 듣는 공익테이블을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공익진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선배 법조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오는 9월에는 직장갑질 119의 대표로 활동하시는 윤지영 변호사를 초빙하여 북토크를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공익 전업 변호사나 공익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재학 중 공부에 매진해야 하니 학교 밖에서 공익 활동을 찾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학내에서 손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공익 활동에 대한 허들을 낮춰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센터가 차려준 밥상을 잘 활용하여 특강도 듣고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익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지속해 나가기 바란다. 하나 하나 발자국이 쌓여 족적을 이루면 공익적 진로를 모색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로스누나 센터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통해 공지되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참고하기 바란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센터에서 학기별로 선발하는 공익 조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법률상담, 소송, 제도개선 사업들을 가까이에서 보조하며 공익활동을 보다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한하은 학생기자

김화진 교수의 발자취



김 화 진 교 수

김화진 교수님은 회사법, 자본시장법 등 분야에서 국내외 학계의 권위자로 꼽히며, 여러 주요 기업 및 기관에서 이사회 활동과 자문을 수행하며 폭넓게 활동해 왔다. 2006년 서울대에 부임한 이후 상법 분야에서 강의와 연구를 활발히 이어오다가 정년을 맞아 2025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교수님의 학문적 여정과 교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들어보았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와 그동안 다뤄오신 주제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법 중 회사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이 주요 연구 분야입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를 국제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끔 국제법 논문도 썼습니다.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 금융에 대해 주로 공부하고 강의했습니다. 방법론은 20세기 말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법경제학입니다. 법률은 분쟁의 해결과 인권의 보호를 중요한 역할로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께서 법학 공부를 시작하신 때부터 교수로 부임하시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미국으로 이동해서 석사학위(LLM)를 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 사내변호사가 되어서 3년 정도 일했고 그후 국내로 들어와 한 로펌에서 8년 일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로 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항상 보람이 있지요. 교수 생활 전체가 생생한 기억입니다. 특히 로스쿨 출범 후 초기에는 외국 학생들도 많이 왔었는데 우리

학생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공부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요즘 점점 외국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겠지요.

학문적 측면에서 가장 보람찬 성과 또는 특히 기억에 남는 연구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언급한 분야는 법학의 다른 많은 분야들과는 달리 특히 국제 무대에서 공부하고 교류하고 연구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문적 측면에서 가장 보람 있는 성과라면 그런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발표한 것이 되겠지요. 버클리,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미시간 등 로스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이 보람있는 성과였고 특히 회사법 분야 최고 학술지라고 말해지는 Journal of Corporation Law에 논문이 채택되었을 때 꼭 어릴 때 서울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계속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 로스쿨에는 정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장차 법조인이 될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특히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로 대다수 학생들의 목표가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긴 해도, 서울대 법대, 서울대 로스쿨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담보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곳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그 분야에 진출해서 일하는 동기들을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나혜 학생기자

법정에서 강단으로: 이무룡 교수의 새로운 여정



이 무 룡 교 수

이무룡 교수님은 판사로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2025년 2월 서울대 교수로 부임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다. 2017년 판사 생활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학교로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서울회생법원 근무 시절 논문을 쓰며 연구의 즐거움을 느낀 뒤 꾸준히 논문 작성을 이어갔다. 특히 2021년 민법 분야의 저명한 학자 한 분으로부터 글에 대한 격려를 받은 일이 교수의 길을 고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그때 학자로서의 소질을 확신하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문을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서울대에 기회가 열리면서 교수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였다.

교수님의 전공은 민법학이고, 그중에서도 계약법을 주로 다룬다. 특히 해제·무효·취소 등 계약이 해소되었을 때의 법적 처리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그는 사법연수원에서 수업을 들으며 도산법에 관심을 가졌지만, 도산법이 별도의 전공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석사 과정을 민법으로 밟게 되었고, 박사 과정 역시 자연스럽게 민법으로 이어졌다. 다만 연구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점차 도산법보다는 순수한 민법 영역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산법이라는 우회로로 민법학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들어와 보니 적성에도 잘 맞고 의미도 있는 분야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지난 학기 교수님이 맡은 과목은 민사법실무연습이었다. 그는 강의 소감을 묻자 “만만치 않았다”는 한 마디로 답을 시작했다. 강의라는 활동을 직업으로 한 것이 처음이고, 특히 변호사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중요한 수업이었던 만큼 긴장도 컸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분명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강의를 해보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과 정성을 기울일 만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올해 2학기에는 민사법심화연구 강의를 담당하며, 내년부터는

일반대학원 강의도 개설하게 된다. 교수님은 각 강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 방향 및 학생들과의 교감 방식을 고민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법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이무룡 교수님은 자신 역시 “민법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교수”라고 먼저 고백했다. 민법은 학생들만 힘들어하는 과목이 아니라, 실무와 학문 어느 쪽에서도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학자로서는 민법학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법률가로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도 민법은 늘 어려운 과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생활한다면 학생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덧붙였다. 완벽하게 준비해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은 없으므로,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한 가지를 강조했다. 어느 시점이든 필요한 단계를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며, 한 번 포기한 부분은 나중에 극복하기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이었다.

공부 외의 측면에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묻자, 교수님은 지난 학기 학생들과 대면하며 느낀 점을 들려주었다. 그는 학생들이 법률가로서 어느 직역에 가든 결국 인품을 평가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물론 수험생의 입장에서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인품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의식하며 생활한다면 그 부분에서 불필요한 문제나 빈틈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품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를 꾸준히 마음에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나혜 학생기자

지치지 않기 위해, 학우들이 전하는 작은 스트레스 해소법

로스쿨 생활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두 명의 학우가 전하는 각자의 스트레스 원인 및 소소하지만 효과적인 해소 방법, 그리고 다른 학우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



16기 노시현 (뒷줄 우측에서 세 번째)

로스쿨 생활을 하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압박인 것 같습니다. 로스쿨 커리큘럼상 학부 시절에 비해 학기 스케줄도 더 밀도가 높고, 법학 자체도 많은 반복을 요하는 학문이다 보니, 제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저는 현재 로스쿨 축구부 '로스타임'의 임원진으로 활동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로스타임은 주중 1회 훈련, 주말 1회 연습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원들과 운동하며 친목을 다지고, 바쁜 로스쿨 생활 속에서도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입학 초기에는 축구를 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구를 한두 번씩 나가며 형들과 친해지고, 경기장에서 소통하며 함께 경기를 이기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나아가, 축구를 하다 보면 스스로의 한계를 조금씩 극복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 정도를 뛰면 단 한 발도 못 걸을 것만 같았는데,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체력과 경기력이 성장하는 것이 스스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게 축구는 로스쿨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즐기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희열을 느끼는 모든 분들께 로스타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로스타임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축구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열정이 있는 모든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학년 때는 인간관계, 공부, 사는 곳 등 모든 것이 새롭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큼니다. 2학년이 되면 학업량을 계속 늘려가야 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큼니다. 또 진로를 결정하고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도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 자체를 적게 받기 위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자주 곱씹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과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지금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이 공부가 누군가에게는 얻지 못해 한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로 러닝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기숙사 바로 앞에 있는 코인노래방도 종종 갑니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인데, 러닝의 경우 생각을 비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힘들어지니까 마음 속 고민이 사라진다고 해야 할까요? 뛰고 나면 잡념도 사라지고 감정도 훨씬 잦아듭니다. 코인노래방에 가면, 가사를 눈으로 보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 그 기회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음미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보다 스트레스 자체를 덜 받는 것이, 로스쿨 생활에 있어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나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의 폭 자체를 줄이기보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느끼는 감정의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바라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원우님들이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웃으면서 로스쿨 생활을 잘 이어 나갔으면 하는 하지만 큰 소망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김나혜 학생기자



16기 이현우

고립을 넘어, 함께 서기 위해: 17기 강내훈 원우 인터뷰

유학 시절, 고립과 은둔의 반복 속 깊은 구멍이를 경험했던 그는 그 과정을 진술한 수기로 답아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안전망이 되고자 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7기 강내훈 원우를 만나보았다.

학내 게시판에 작성한 고립 경험을 담은 수기가 큰 호응을 불렀었다. 그 경험을 설명해줄 수 있나.

길고 지루한 3년 간의 기간이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은둔을 연속적인 폐인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극복하고자 바깥으로 나왔다가 다른 상처를 받거나 에너지 소진으로 은둔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은둔을 세 번 정도 더 반복했고, 수기에 작성했던 최초의 잠적 이후에도 휴복학을 반복했다. 정말 힘든 부분은 은둔이 반복됐을 때였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런 애'가 된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 '구멍이'에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은 나아졌다. 첫 번째 은둔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에는 내 상태를 알릴 수 있었고, 세 번째에는 나름대로 운동을 했다. 그런 내적인 발전이 점점 쌓이다보니 그 구멍이가 점차 알아졌다.

은둔 고립 청년 지원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활동은 어땠었나.

이러한 기관에서는 봉사자를 잘 구하지 않는다. 좋은 마음만으로 임했다가는 서로 오해와 상처만 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먼저 은둔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대면하는 자원봉사가 있는지 먼저 여쭙었다. 이력을 보시고 사무국장님께서도 유학까지 다녀오고, 이전까지는 별다른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내가 이질적일 수 있다고 염려하셨다. 유학 시절 게임에 빠졌을 때 고등학생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여러 배경의 사람들과의 소통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들으니 긴장이 되기도 했다.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은 유년기의 속마음을 내보이고, 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조교와 비슷한 위치에서 수업을 보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그 수업에 빠져 들어가기도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망설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물꼬를 트고자 노력했다. 센터 내에서 극적인 변화를 보았다. 본인들의 문제를 극복한 뒤 다시 센터에 나가 강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신다. 내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순환의 가능성을 본 것 같다. 그 분들이 나가서 도움을 드린 분들이 또 회복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 사회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스쿨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싶은가.

두 가지 의미로 안전망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 먼저 말 그대로 밑에서 떠받치며 지탱하는 안전망이 되고 싶다. 로스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실패에 대한 불안도가 높는데, 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 나머지 하나는, 함께 있다는 감각을 줌으로써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 유학 시절에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상황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 남들은 이 모습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내가 만든 환상이었다. 이러한 환상 속 풍차와 싸우고 있는 돈키호테들의 풍차를 부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이에 더해, 학교에서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다. 일명 'LOSER'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엔 루저지만 사실 Law school Organization for Self Esteem and Resilience의 약자로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위한 모임이란 뜻이다. 밖에서 언뜻 보면 낙오자처럼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더 자세히 그 맥락을 들여다달란 의미 또한 존재한다. 1학년이 끝나면 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구멍이에 빠진, 또는 그러한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호의를 일발 장전하며 살고 있으니,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상황을 공유했으면 한다. 나 역시 주변의 도움과 응원을 많이 받았다. 그 연결이 무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노력했으면 좋겠다.

법학전문대학원 한하은 학생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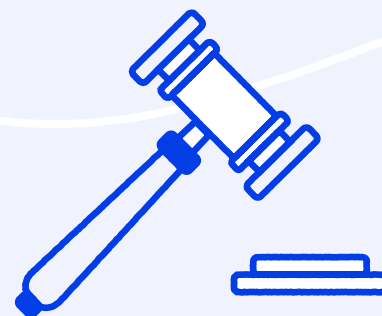


다양한 학부 전공생들의 법학 적응기

17기
이신형
이은세
최혁중



“껍데기보다는 알맹이에 초점을
맞추어가면서 속도와 내용 면에서도
성장해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 중 하나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인문학부터 경영학까지, 서로 다른 전공에서 출발한 학생들이 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에 도전하며 겪는 경험은 어떨까? 경영학도, 보건정책학도, 동양사학도에서 법학도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로 다른 전공 배경을 가진 세 명의 로스쿨 학생을 만나보았다.

Q. 본인의 학부 전공을 소개해 주세요.

최혁중 · 저는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이신형 · 저는 보건정책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생소한 전공일 수 있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건강 문제를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전공입니다. 보건정책이나 보건의료시스템뿐 아니라 국제 보건 문제, 건강 불평등, 의학, 보건통계·경제·경영, 의료법 등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과목들을 배웠습니다.

이은세 · 저는 인문대학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했습니다.

Q. 로스쿨 입학 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특히 전공과 법학이 달라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최혁중 ·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 중에서도 재무금융 분야를 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주로 숫자를 다루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와서 갑자기 많은 텍스트를 읽고 써야 한다는 점이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직 완전히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이어가면서 <텍스트로 쌓아 올린 글>과 <숫자로 쌓아 올린 모델>이 많아 있음을 깨달은 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술적으로 멋진 글을 쓰기보다는 명료한 단어와 문장으로 하나씩 논리를 쌓아간다는 생각을 하니 조금씩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껍데기”보다는 “알맹이”에 초점을 맞추어가면서 속도와 내용 면에서도 성장해 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신형 · 로스쿨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공부 과정에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완벽히 준비되기는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시험기간에는 체력적으로 조금 버거웠던 것 같아요. 특히 학부 때의 시험은 배운 내용을 그대로 쓰거나 약간 응용하는 정도였다면, 법학 시험은 주로 생소한 사례를 보고, 배운 법리를 적용하여 서론-본론-결론이 갖춰진 논리적인 글을 작성해야 하다 보니 공부 방법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직접 부딪히며 부족한 점을 점진하고 보완하면서, 점차 저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은세 · 아무래도 기존에 법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경험이

없는 만큼, 낯선 용어와 체계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니다.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따로 찾아본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또한, ‘입법자가 만든 법’이라는 규범 아래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재미있기도 하고 약간은 낯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법 개정이나 입법을 통해 법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에서야 시대상의 변화로 인해 지금과는 잘 맞지 않는다거나,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거나 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일단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역사학에도 여러 이론과 틀 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법이 가지는 것과 같은 권위나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생소함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하네요.

Q. 본인의 전공 지식이 법학 공부나 로스쿨 생활에서 도움이 된 적이 있나요?

최혁중 · 경영학을 공부하고 법학을 공부하는 것은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나 금융 관련 분야는 법학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갖고 있다는 건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분야와 관련된 선택법 과목을 수강하거나 학회 및 대회 활동을 할 때 접근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실감하는 것은, 법학적 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 경영학적 사고방식이 토대가 된다는 점이에요. 아직 배

움의 초입 단계이긴 하지만, 기업과 산업에 대한 사고의 틀이 있다는 점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사고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과정이 훨씬 재미있고, 또 의미 있게 느껴져요.

이신형 · 아직은 민법, 형법 등 기본 과목 위주로 배우고 있어서 전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다만 법철학 수업에서 코로나19와 재난 불평등을 다뤘을 때는 학부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의료법이나 사회보장법처럼 보건·복지와 관련된 법을 배우게 된다면, 학부 전공에서 쌓은 지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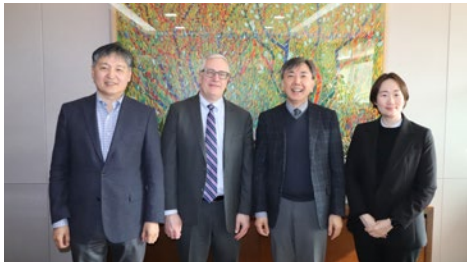
이은세 · 아직까지는 전공 지식 자체가 크게 활용된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공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외국어(한자, 일본어)는 나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세와 법 공부에서 필요로 하는 자세 간에 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사실과 기록들을 세밀하게 뜯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라고 해야 할까요? 친구가 숲과 나무가 있다면 자신의 학부 전공은 숲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법학은 나무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학과 법 공부 모두 나무에 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성승현 학생기자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소 식

LSGL(Law Schools Global League) 회장
James Speta 교수, 서울대 법전원 방문

2025년 3월 11일(화) Northwestern Pritzker School of Law의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입된 Law Schools Global League(LSGL)의 공동 회장을 맡고 있는 James Speta 교수가 서울대 법전원을 방문하였다. 이재민 원장과 Speta 교수는 SNU Law와 LSGL 간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이 LSGL이 주관하는 다양한 국제 학술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Northwestern Pritzker School of Law 간의 학술 및 교류 협력 확대 가능성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5학년도 1학기
서울법대 국제학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2025년 3월 26일(수) 17동 108호에서 국제학생들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학교 시설, 행사 등과 관련한 국제학생지원센터 및 학생

회의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이후, 참여한 학생들이 함께 샌드위치를 먹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스쿨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외국 학교 학부생, 박사과정 연구 펠로우 등 다양한 국적과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며 학교생활의 의지를 다졌다.



2025년 봄맞이 점심

2025년 4월 2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관 로비에서 '2025 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 교수, 직원을 위한 행사로, 서울법대 전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유로운 스탠딩 파티로 진행된 식사 자리에서는 서울법대 구성원들이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즐겼다. 이재민 법학대학원장은 “캠퍼스에 가득한 봄 기운을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 봄축제
'개화:BLOOM' 열려

2025년 5월 1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동 일대에서 법대 봄 축제 '개화:BLOOM'이 개최되었다. 원우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기록할 수 있는 설로넛 사진부스가 김장리홀에 마련되었고, 15동 1층에서 턱걸이대회와 E스포츠 게임이, 탁구장에서는 탁구대회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15동 앞 광장에서는 분식 및 간식류를 제공하는 간식차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비로 인해 일부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지만, 축제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게임을 즐기고 간식을 함께 먹으며 봄기운을 만끽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라오스 최고인민법원 방문단,
서울대 법전원 방문

2025년 6월 12일(목), 아농 느위이싸이캄(Anong GNOYSAYKHAM) 라오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최고인민법원 방문단 8명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공식 방문하였다. 본 방문은 라오스의 사법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방문단을 위하여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그 전신인 사법대학원(1962-1970년 운영)의 설치 장소였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 사법교육의 역사와 현행 로스쿨 제도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최우수상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법학전문대학원 부문에서 이수린, 이지원, 조수빈, 최은석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보린' 팀이 로스쿨 부문 최우수상, 권정유, 김민찬, 김서진, 서지선, 임철균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자가비' 팀이 로스쿨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대학(원) 부문 29개)이 참가해 예선을 거쳤으며, 부문별 4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 인공지능 학습·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쟁점을 다뤘다. '개보린' 팀은 대회를 준비하며 바쁘기도 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법조문이나 판례 위주의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마주하여 적용될 법리를 고민하고 그 근거를 찾아나가는 시간이 값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이예린, 이준혁, 장시영, 하형종 학생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무자력' 팀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43개 팀이 참가하여 예선을 거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 진출팀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으로 팀을 나누어 구술 변론을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무자력' 팀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무효확인청구라는 주제로 기각측 대리인을 맡아서 본선 경연에 참여했다. 우승팀의 학생들은 행정법과 산업입지법 등 관련 법리를 탐구하고 실제 변론을 준비해 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팀원들과 협동해서 대회를 준비했던 시간이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제11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 등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안민영·김은서·김희중 학생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초로 우승을 기록했다. 이번 모의법정의 주제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대노조(다수노조)와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 불리한 정리하고 기준안을 마련한 사건이었다. 소수노조는 이에 단체행동으로써 대항하였고, 사용자와 교대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소수노조 간 부들에 대한 부당징계해고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국 로스쿨 3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8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안민영·김은서·김희중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생생한 사건을 통해 살아있는 노동법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생소한 분야였지만 좋은 원우들과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며 법학 실력을 쌓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외에도 조영욱, 이동은, 임재영 학생팀이 우수상을 곽한별, 박민찬, 조예지 학생팀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4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3시, 서울대학교 근대 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84동) 주산홀에서 일반대학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재민 원장은 인사말에서 졸업을 축하하며, 졸업생들에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교훈을 전했다. 아울러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용현 서울법대 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겸손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나아가 노블레

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인재가 되라고 말했다. 답사를 맡은 졸업생 대표 김선화 박사(법학박사)는 논문을 완성한 소회를 밝히고, 지도교수와 가족을 비롯한 주위의 도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법학박사 9명과 법학석사 21명 등 총 30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연구 소 · 센 터 소 식

공익법률센터,
제6회 공익·인권 프로그램 성료

공익법률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와 공동으로 8월 4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1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7로평공익, 노동, 장애, 이주, 여성, 아동·청소년, 환경, 시민사회, 정보인권 등 10개 분야의 17개 협력기관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실무 수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은 3일간의 공동 교육과 6일간의 실무 수습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과 분야별·주제별 특강을 통해 공익·인권 분야의 전반적 내용을 학습한 뒤, 희망하는 협력 기관에 배정돼 공익 법률 업무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았다. 또한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 장애, 이주, 소년사법과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였다. 한 학생 참가자는 “앞으로의 법조인 인생에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될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 프로그램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른 후배들도 이런 좋은 기회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단체와 더 많은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매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익법률센터,
제3회 SNULaw 공익법캠프 개최

공익법률센터는 2025년 7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제3회 SNULaw 공익법캠프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공익법캠프는 공익과 인권에 관심 있는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법과 인권의 접점을 직접 경험하고 고민해보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에는 총 57명의 학생들이 함께했으며, 아동청소년, 장애인권, 노동인권 세 분반으로 나뉘어 각 주제에 맞는 현장 방문과 전문가 강연, 과제 발표 등을 통해 이슈들을 다각도로 조망했다. 또한 지난 기수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되어 공익법률센터의 임상교수 및 지도변호사, 다른 분반 참가자들과 함께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익 분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법조 분야에서의 공익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학부생을 위한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67회 아시아태평양법 포럼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2025년 3월 25일(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67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의 진행과 Masaki Iwasaki 교수의 소개로 일본 아키타 국제대학교 교수이자 뉴욕타임스 기자 출신인 Miki Tanikawa 교수가 “The Free-Speech Triangle and the Eroding Power of the Press (언론자유와 삼각관계와 언론 권력의 침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전종익 소장, 오영걸 교수, 조동은 교수, Masaki Iwasaki 교수와 학생 등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제68회 아시아태평양법 포럼 개최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는 2025년 3월 27일(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본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68회 Asia-Pacific Law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날 Forum에서는 오영걸 교수의 진행과 최준규 교수의 소개로 현재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학술원 및 에르푸르트 공익학술원 회원이며, 정년퇴임 이후에도 쾰른대학교에서 시니어 교수로서 연구와 교

육을 계속하는 한편, 변호사법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Prof. Dr. Dr. h.c. mult. Hanns Prütting가 “Grundfragen und aktuelle Entwicklungen der Beweislast (증명책임의 기본문제와 최근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Forum에는 서울대학교 오영걸 교수, 이우영 교수, 이은상 교수, 오정후 교수, 정선주 교수, 최준규 교수, 호문혁 교수, 홍윤선 교수(군산대)와 학생 등이 참석하여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제3회 학술대회 및
SNU Law 연구자포럼 제5기 수료식 개최

서울법대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천경훈 교수)는 2025년 8월 23일(토)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제3회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박사후연구원, 연구펠로우, 연구자포럼, 미래연구자포럼 등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소속 연구자들이 한해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이다.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펠로우 세션에서는 이성민 박사가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수사기관 내부 지침의 공개”, 정익석 박사후연구원이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기부채납 관련 사실소인으로 인한 사용자거부처분의 재량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메르베, 이용훈, 임춘광 연구펠로우는 각자의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하였다. 연구자포럼 세션에서는 SNU Law 연구자포럼 제5기 정준영 조교(서울대 법학연구소), 양소연 연구관(헌법재판소), 임동민 검사(춘천지검 원주지청)가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학술대회 종료 후 이어진 SNU Law 연구자포럼 제5기 수료식에서는 지난 1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을 회고하고 참여자들의 학술지 게재 현황을 소개하며, 수료를 축하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꾸준한 연구를 독려하였다.



경쟁법센터,
제1차 법.정책세미나 개최

서울대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 교수)는 2025년 8월 22일(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플랫폼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세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입법 논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와 수수료 규제와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서치원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이용사업자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검토라는 주제로 유영국 교수(한신대 평화교양대학)가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가 좌장으로 참여하였고, 윤신승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선영 교수(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박성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공익산업법센터,
제25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5년 7월 1일(화) 미국 하와이에서 ‘인공지능 규제의 경계(境界): 예측가능성과 실행가능성의 모색’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온 인공지능(AI) 거버넌스에 대해, 이제는 추상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 체계를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에 공익산업법센터는 영국, EU, 미국, 캐나다, 한국의 전문가를 모시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AI 규제 대상의 설정 기준과 방법론 그리고 규제 대상 AI에 대한 의무 부과 체계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공익인권법센터, 국제학술대회
“Powerful Voices of the Subaltern”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최계영 교수)는 2025년 6월 12일(목) 국제학술대회 “Powerful Voices of the Subaltern”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여성연구소·여성학협동과정과 함께 공동 개최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오전 세션에는 타이완 국립대 차오 루 첸(Chao-ju Chen) 교수, 캐나다 세인트 메리대 벨마리 존슨(Val Marie Johnson) 교수, 일본 오키나와대 홍윤신 교수가 발표를 맡았고, 오후 세션에는 미국 유틀대 김현숙 교수, UCLA 살로니마투어(Saloni Mathur) 교수, 러거스대 수잔 김(Suzanne A. Kim)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발턴, 식민주의, 여성주의 등을 주제로 초국적이고 학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금융법센터,
현안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025년 7월 29일(화)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민 원장(서울대 법전원)의 축사와 노혁준 센터장

(금융법센터)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김지평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노혁준 교수(서울대 법전원), 정준혁 교수(서울대 법전원), 천경훈 교수(서울대 법전원), 천준범 변호사(와이즈 포레스트)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개정 상법의 주요 쟁점을 두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실무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과경제연구센터,
SAIPCON 2025 개최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임용 센터장)는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서울대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와 2025년 8월 21일(목) 용산에 위치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SEOUL AI POLICY CONFERENCE 2025』(서울AI 정책 컨퍼런스2025)를 공동 주최하였다. <AI 거버넌스의 전환: 균열을 넘어 공존으로>라는 주제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 이면에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균열, 즉 AI 거버넌스의 단층선(fault lines)을 조망하는 자리가 되었다. 세계적인 석학 및 기업 리더들이 모여, AI 시대에 대두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의 지형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공존을 위한 거버넌스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
제5회 기초법학 논문상 공고

법이론연구센터는 5월 ‘2025년 제5회 윤춘·온울 기초법학 논문상’을 공고하였다. <윤춘·온울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윤춘과 사단법인 온울이 후원하는 학술상이다. 올해는 특히 더욱 다양한 지원자들의 연구를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법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모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을 공모한다. 대상 수상자(1편)와 우수상 수상자(2편)에게는 각각 상금 300만원과 100만원이 수여된다. 논문 제출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문의: legaltheory@naver.com, 법이론연구센터)

법이론연구센터,
정기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는 법학의 근본문제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콜로키움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세 차례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3월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강태경 연구위원이 “계약준수의 심리학-계약준수는 약속에 대한 충실인가, 위협에 대한 수용인가?”를, 4월에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의학교육학 교실 유기훈 교수가 “‘무능(無能)’으로부터 정치철학을 재사유하기: 정신장애 당사자 실천의 철학적 함의”를, 5월에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오근창 교수가 “시민다움으로서 매너”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법이론연구센터는 2학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할 계획이다.

법이론연구센터,
학술대회 개최

법이론연구센터는 지난 7월 10일(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서암홀에서 한국법사학회, 헌정사연구회와 함께 학술대회 “1948년 헌법의 사상적 기초-동학사상을 중심으로”를 공동 개최했다. 개회식은 최정인 교수(서원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전종익 교수의 개회사, 김도균 센터장, 이영록 한국법사학회 회장, 문준영 헌정

사연구회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 ‘동학사상과 1948년 헌법의 사상적 기초’는 정금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배정훈 교수(전남대)는 「동학과 국민주권의 맹아」라는 발표를 통해 동학에서 민(民)의 개념이 주제로서 부상한 점을 조명했다. 최호동 박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는 「동학농민혁명에서 ‘보국안민’ 개념의 의미 고찰」 발표를 통해 국가 인식 전환의 계기로서 동학을 해석했다. 정상우 교수(인하대)는 「동학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집강소 체제가 초기 헌정에 미친 영향을 고찰했다. 두 번째 세션 ‘동학사상과 1948년 헌법규정의 형성’은 황승흠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전종익 교수는 「천도교의 정치활동과 평등」을 주제로, 이나미 교수(경희사이버대)는 「동학과 1948년 헌법의 상생 정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황승흠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용휘 교수(대구대), 임형진 교수(경희대), 신용인 교수(제주대), 양태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현정 박사(건국대)의 열띤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법학연구소,
2025년 1학기 「법과 문화 포럼」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25년 3월부터 5월 까지 총 9회에 걸쳐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3월 12일에는 김화진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신지정학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3월 19일에는 박정재 교수(서울대 지리학과)가 “아프리카에서 한반도까지-기후가 만든 한국인의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3월 26일에는 정병설 교수(서울대 국어국문학과)가 “인간의 길, 문학의 길-전근대 문학연구의 시작”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4월 9일에는 서혜연 교수(서울대 성악과)가 “성악의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4월 23일에는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젠더법학, Old and New”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4월 30일에는 유남석 소장(제7대 헌법재판소장)이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헌법해석-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에 관한 단

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5월 14일에는 정선주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민사소송 ‘법/법학’의 원용-증거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5월 21일에는 이창희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교수라는 직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5월 28일에는 김나영 소장(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이 “의학 생명과학에서 성/젠더 접근이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법학연구소, 제15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전원열 교수)는 2025년 3월 7일(금) 17동 서암홀에서 제15회 서울대학교 법학 신진예비연구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다룬 여섯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신준섭 박사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전치주의에 관한 연구-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이태정 박사는 “독일 행정법상 규제재량 이론에 관한 연구”, 이유진 전문박사는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석향성 박사과정 수료생은 “중국 경미범죄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김은비 박사과정 수료생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위약벌에 대한 제398조 제2항 유추적용 가능성에 관하여-”, 김수영 박사과정 수료생은 “비혼모의 재산권과 노동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각 발표 후에는 지도교수의 논평과 더불어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릴레이
도서 추천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홍진영 교수



사랑과 법

대학시절 문학상에 입선하며 글 쓰는 사람의 꿈을 품었던 저자는 검사가 되어 수없이 많은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는 틈틈이 사회보장법 논문을 썼다. 지금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사회보장법을 가르치는 그는, '사랑'과 '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검사 시절에 겪었던 사건들을 회고하며 오랜 시간 꼭꼭 눌러 담았던 글쓰기의 꿈을 담담하면서도 유려하게 펼쳐 보인다. 뉴스의 1면에 등장하지 않는 검사가 매일 어떻게 기록을 살피고 기소와 불기소 판단에 이르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책과 더불어 정명원 검사님의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장혜영 | 궁리 | 2024



소년을 위한 재판

오랜 기간 소년재판을 담당해 온 심재광 판사님은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와 그 원인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더불어, 소년재판이 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그들이 사회에 원만하게 복귀하도록 돕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친절히 설명해준다. 이 책을 읽고 소년재판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면 1학년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 중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활동에 참여하고, 류기완 판사님 등이 공저한 「네 곁에 있어 줄게」, 서현숙 작가의 「소년을 읽다」도 읽어보기를 권유한다.

심재광 | 공명 | 2019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저자의 직업 때문인지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느릿느릿 안개처럼 다가와” 대학원 시절 본격화된 조현병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옥스퍼드 철학과 대학원과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였고, 현재에는 서던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저자의 삶은 그 자체로, 사회적 지지 체계가 뒷받침된다면 조현병을 가진 사람도 일하고 사랑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다. 다만 저자가 선택한 정신분석 치료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E. 폴러 토리의 「조현병의 모든 것」에 잘 설명되어 있다.

엘런 섉스/정지인 옮김 | 소우주 | 2023



먼저 온 미래

이 책에서는 자타공인 바둑 천재 이세돌의 알파고와의 충격적인 패배 이후, 바둑이 인간 대 인간이 각자의 '기풍'을 갖고 겨루는 경기에서 누가 시에 가깝게 둘 수 있는가를 겨루는 경기로 변화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바둑 기사들은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또는 바둑의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 보인다. 바둑계에 '먼저 온 미래'를 바라보며, 저자는 소설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상상하고, 짧게나마 인간 판사가 '시 판결 도우미'의 제안과 다른 결론을 내릴 때 그 이유를 해명하여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하여도 상상한다. 그러나 여전히 저자는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고, '우리 영혼의 선장'이라고 하면서 책을 마무리한다. '아직까지는.'

장강명 | 동아시아 | 2025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 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격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 人 양성
-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 人 양성
-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 세 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네 이 밍 예 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 SNU Law Family 머 그 켓 증 정
1만 원(1구좌)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 온라인 기부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 http://secure.donus.org/snulaw
 -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연결 됩니다.



- 전화·이메일
 - 전화. 02.880.2448
 - 이메일. lawgiving@snu.ac.kr
 - 카카오톡. snulawfund

Next Decade 기금 (발전기금) 안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 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2448

팩스 .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15호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여타 기관	

법 학 발 전 재 단 및 발 전 기 금 출 연 현 황

2025. 3. 1. — 2025. 8. 31.

이혜수	10,000	2025.03.05	김연각	10,000	2025.03.05	이창규	10,000	2025.03.05
법률사무소 탐(이윤진)	10,000	2025.03.05	정철호	10,000	2025.03.05	이현선	50,000	2025.03.05
홍지의	10,000	2025.03.05	김정민	10,000	2025.03.05	오테옥	100,000	2025.03.05
김준영	50,000	2025.03.05	강윤구	10,000	2025.03.05	박진호	10,000	2025.03.05
석소현	10,000	2025.03.05	이종준	10,000	2025.03.05	김지수	10,000	2025.03.05
김국태	10,000	2025.03.05	윤아현	10,000	2025.03.05	김다연	30,000	2025.03.05

박은정	10,000	2025.03.05	홍지의	10,000	2025.05.07	박상록	10,000	2025.06.07
박상록	10,000	2025.03.05	김준영	50,000	2025.05.07	김현희	10,000	2025.06.07
김현희	10,000	2025.03.06	석소현	10,000	2025.05.07	박정현	30,000	2025.06.07
박정현	30,000	2025.03.07	김연각	10,000	2025.05.07	김효준	10,000	2025.06.07
김효준	10,000	2025.03.07	정철호	10,000	2025.05.07	법률사무소 탐(이윤진)	10,000	2025.07.08
홍 성혜	10,000	2025.03.07	김정민	10,000	2025.05.07	홍지의	10,000	2025.07.08
법률사무소 탐(이윤진)	10,000	2025.04.05	강윤구	10,000	2025.05.07	김준영	50,000	2025.07.08
홍지의	10,000	2025.04.05	이종준	10,000	2025.05.07	석소현	10,000	2025.07.08
김준영	50,000	2025.04.05	윤아현	10,000	2025.05.07	김연각	10,000	2025.07.08
김국태	10,000	2025.04.05	이창규	10,000	2025.05.07	정철호	10,000	2025.07.08
석소현	10,000	2025.04.05	이현선	50,000	2025.05.07	김정민	10,000	2025.07.08
김연각	10,000	2025.04.05	오테옥	100,000	2025.05.07	강윤구	10,000	2025.07.08
정철호	10,000	2025.04.05	박진호	10,000	2025.05.07	이종준	10,000	2025.07.08
김정민	10,000	2025.04.05	김지수	10,000	2025.05.07	윤아현	10,000	2025.07.08
강윤구	10,000	2025.04.05	김다연	30,000	2025.05.07	이창규	10,000	2025.07.08
이종준	10,000	2025.04.05	박은정	10,000	2025.05.07	이현선	50,000	2025.07.08
윤아현	10,000	2025.04.05	박상록	10,000	2025.05.07	오테옥	100,000	2025.07.08
이창규	10,000	2025.04.05	법률사무소 탐(이윤진)	10,000	2025.06.07	박진호	10,000	2025.07.08
이현선	50,000	2025.04.05	홍지의	10,000	2025.06.07	김지수	10,000	2025.07.08
오테옥	100,000	2025.04.05	김준영	50,000	2025.06.07	김다연	30,000	2025.07.08
박진호	10,000	2025.04.05	석소현	10,000	2025.06.07	박은정	10,000	2025.07.08
김지수	10,000	2025.04.05	김연각	10,000	2025.06.07	박상록	10,000	2025.07.08
김다연	30,000	2025.04.05	정철호	10,000	2025.06.07	김현희	10,000	2025.07.14
박은정	10,000	2025.04.05	김정민	10,000	2025.06.07	박정현	30,000	2025.07.14
박상록	10,000	2025.04.05	강윤구	10,000	2025.06.07	김효준	10,000	2025.07.14
김현희	10,000	2025.04.05	이종준	10,000	2025.06.07	재단법인 나은	25,000,000	2025.08.05
박정현	30,000	2025.04.07	윤아현	10,000	2025.06.07	법률사무소 탐(이윤진)	10,000	2025.08.08
김효준	10,000	2025.04.07	이창규	10,000	2025.06.07	홍지의	10,000	2025.08.08
홍 성혜	10,000	2025.04.07	이현선	50,000	2025.06.07	김준영	50,000	2025.08.08
김현희	10,000	2025.05.07	오테옥	100,000	2025.06.07	석소현	10,000	2025.08.08
박정현	30,000	2025.05.07	박진호	10,000	2025.06.07	김연각	10,000	2025.08.08
김효준	10,000	2025.05.07	김지수	10,000	2025.06.07	정철호	10,000	2025.08.08
홍 성혜	10,000	2025.05.07	김다연	30,000	2025.06.07	김정민	10,000	2025.08.08
법률사무소 탐(이윤진)	10,000	2025.05.07	박은정	10,000	2025.06.07	강윤구	10,000	2025.08.08

이종준	10,000	2025.08.08	박진호	10,000	2025.08.08	김현희	10,000	2025.08.11
윤아현	10,000	2025.08.08	김지수	10,000	2025.08.08	박정현	30,000	2025.08.11
이창규	10,000	2025.08.08	김다연	30,000	2025.08.08	김효준	10,000	2025.08.11
이현선	50,000	2025.08.08	박은정	10,000	2025.08.08	* 기부정보는 기부자의 익명약정 요청 및 신청서가 미접수된 경우 해당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오태욱	100,000	2025.08.08	박상록	10,000	2025.08.08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홍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예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근조기	•	•	•	•	•	•	-

